생명책 노리는 마귀의 따스함

(다니엘 12:1~13)

1.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2.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4.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생명책 노리는 마귀의 따스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생명책 노리는 마귀의 따스함'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인간에게 결코 따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에 빙의된 적그리스도는 인간을 향하여 참 따스하게 다가옵니다. 반면에 성령에 이끌리는 참 선지자들은 인간들을 향하여 차갑다 싶을 정도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앞서 7장에서 나오는 네 짐승 중에 마지막 짐승으로 상징되는 마귀에 빙의된 자가 적그리스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에서 큰 상실을 겪게 되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영적인 타락을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바로 앞장 31절에서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주는 영적인 손실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의 개념을 잃게 하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인 십자가 생활화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가증한 것을 세웠다는 것은 제우스 신상을 성전 안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고 하신 제1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곧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들로부터 찾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일은 결코 육체적 환경에 대한 환난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집을 빼앗지도 않고 사업을 방해하지도 않고 혼삿길을 막는 등의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성전중심의 생활 하나를 막았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많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7년 대환난에 육체적으로 핍박과 탄압을 받고 물리적으로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적그리스도가 할 일을 모범적으로 제시해 보여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단지 성전을 없애버리고 선민의 성전중심의 생활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대원군 때에 천주교인들을 향한 병인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대원군은 6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박해를 가했지만 적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환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에 교회는 오리무중에 빠져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지금 활동하며 대활약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일어날 육체적 물리적 환난만을 걱정하며 지금을 살펴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일어날 환난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스한 환경을 조성해줌을 통해서 영적 환난을 불러일으킵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결코 따스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에 빙의된 인간들 즉 적그리스도는 따스함을 가장하여 찾아옵니다. 환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다면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도 마귀의 거짓된 따스함에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환난에 마음이 녹아내린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귀가 따스함을 가장하는 이유도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따스함을 가장하는 것이야 말로 마귀가 성도를 대적하는 환난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환난을 먼 미래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게 될 7년 대환난으로 여기며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방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적그리스도가 따스함을 가장하여 생명책에서 성도들의 이름을 지우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생명책의 의미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내쫓고 거짓된 따스함에 속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7년 대환난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관념에는 모순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7년 대환난을 잘 통과한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미 죽어서 7년 대환난을 겪지도 않았는데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환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난의 오해가 위험한 이유는 생명책에 우

리 이름이 기록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영적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서도 환난과 연결되어 생명책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 생명책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멸절시키려 하시자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32절을 보면 모세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33절에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상태에서 지우시는 것으로써 심판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시편 69편 28절을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의하면 악인들조차도 본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자면 악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음으로 인해서는 기뻐하지 않고 이 땅의 일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의인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것이 땅의 일이라면 기뻐하지 않고 오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인해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사데 교회에 하시는 말씀 중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지우지 않겠다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또 13장 8절에서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유대종교 말살정책은 적그리스도가 영적 타락을 일으키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곧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창세전에는 이러한 이들의 이름조차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 생명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언급된 이유는 바로 어린 양이 상징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책에 이름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생명책에 대한 이해가 쉽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아직 창조되기도 전에 그 후손인 노아나 아브라함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고 이후로는 저나 여러분은 물론이고 세상이 끝날 때가지 태어나게 될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

다는 것입니다. 물론 태승철이라는 이름은 육체의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지만 저의 인격을 위한 고유한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이름이 계속해서 생명책에 남아있을지는 삶의 과정을 통해 결정되게 됩니다. 이 이름이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 이후에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사는 사람들의 이름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의 생명책이 창세후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써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태어날 모든 사람의 이름을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마치 파티나 세미나 같은 모임에서 참가자들의 명단을 미리 작성해두는 것과 같습니다. 초청장을 보내서 오겠다고 응답한 사람들만 이름표를 붙인 자리를 준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라는 초청장에 응답하고 하늘로 오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몸이 죽어서 이 세상 삶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마음이 하늘 잔치에 가겠다는 응답을 해야만 합니다. 삶이 끝날 때까지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잔치 명단에서 내 이름은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초청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마음을 연합하여 부활과 승천을 따르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명단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것이란 가졌을 때에 기쁨과 만족을 주는 대상이 바로 좋은 것입니다. 부자가 살았을 때에 받은 좋은 것이란 바로 돈을 비롯한 세상의 가치들입니다. 한편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고난은 단순히 나사로가 거지로써 천시 받았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자와 비교하여 볼 때에 상대적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사로의 이름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통해 나사로가 추구했던 기쁨과 만족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쉽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기쁨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응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 땅에 기쁨거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땅에서 기쁨거리를 갖지 않는 상태를 고난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기쁨거리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기쁨을 추구할 수밖에 없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땅에서는 기쁨을 찾을 수 없었기에 하늘에서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이 상징하는 바가 이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냈고 실제로 천국의 자기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매일 천국의 잔치 석상을 둘러보고 계십니다. 그 이름이 있는 자리가 비어있음을 보시며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는 동안 끝내 하늘로 마음을 보내지 않고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고 있다면 천국의 잔치 석상에서 그 이름은 지워지고 말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라고 하시며 오히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보다 훨씬 대수롭지 않은 일들을 통해 기뻐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목사님이나 교인들조차도 세상적인 일이 좀 잘 풀리면 그것으로 기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해야만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음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이름이 서울대 합격자 명단에 올라가자 부모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단순히 합격자 명단에 올라가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가 좋은 곳임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합격한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고 천국이 좋음을 알기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대해 이해했으니 이제 환난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종교 말살정책을 편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환난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가치관을 기준으로 보면 따스함을 가져다 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 물리적 탄압과 박해만을 환난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적그리스도가 가져다주는 영적인 환난에 대해서는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게 하셨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재벌가나 왕가의 자제들이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애초에 천국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면 환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왜 세상으로 내보내신 것일까요? 여기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선택은 곧 인격적 사랑입니다.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봅니다. 결혼이란 전 세계에 35억 명이 넘는 이성 중에서 단 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좋으심이 육체의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좋으심은 가려져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좋다고 여겨지는 가치들과 하나님 중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늘로 올라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인격적 사랑입니다. 아예 천국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보도록 창조되었다면 세상에 내려가라 하신들 내려가겠다고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천국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보면 환난의 진정한 의미도 뚜렷해집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연합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통해 선민들에게 거룩함의 개념을 제시하셨습니다. 성전은 기쁨과 만족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는 상태가 바로 거룩함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돈이나 출세나 건강 등의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다만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원죄를 가지게 되었고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더러움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돈이든 출세든 자녀의 형통이든 오만가지 대상들을 담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더러움을 기본적인 상태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와도 저항감을 가지지 못합니다. 돈을 마음에 담는 것이 실은 얼마나 더러운 일이지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주심으로 마음의 더러움을 진단하고 파악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법궤만이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기쁨과 만족의 근거이신 하나님만이 들어와 계셔야 함을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더러움에 대한 깨달음은 곧 깨끗해질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깨끗함을 위한 장소로써 성전에는 번제단이 존재했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가 드려졌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운 것은 곧 마음에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번제단을 통해서 죽여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더러움의 상태에서는 거룩함이 제시되는 성전이 환난입니다. 더러움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러움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오히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일은 본래의 편안함을 되찾게 해주는 따스함이었습니다. 성전을 통해 더러움을 진단해낸다면 깨끗함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를 부인하는 환난을 자처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성전 생활화를 요구하신 이유는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

로써 마음이 땅을 등지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유일한 장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전의 생활화는 곧 환난의 자처함입니다.

이 환난은 알 수도 없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게 될 7년 대환난으로만 국한시킬 수는 없습니다. 소위 7년 대환난으로부터 가장 시기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편안하게 살아가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녀도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내를 타국에서 몇 번이나 잃게 됩니다. 100세에 얻은 목숨보다 소중한 이삭을 번제단에 올리고 죽일 뻔도 하였습니다. 환난이란 내게 주어진 것들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섬기던 아브라함의 삶은 그야말로 환난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신 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더러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가치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만으로 기쁨과 만족을 삼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마음속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좋아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일은 성전을 더럽히고 상번제를 없애고 제우스 신상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적용해본다면 고생하며 하나님을 찾기 보다는 편안함 삶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내도 잃을 필요가 없고 이삭을 죽일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만으로 보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의 집을 빼앗지도 않았고 장사를 못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로 제사들 드리고 성전을 모독했을 뿐입니다. 마음의 더러움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더러움을 유지시켜주는 따스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결코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결코 성도들을 탄압하고 재산을 빼앗는 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 7년 대환난 동안에만 나타날 일이 아닙니다. 더러움이 기본인 우리에게 마귀가 빙의된 적그리스도는 따스한 말을 해줄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이끄는 지혜자는 따듯한 소리를 하는 자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형제간에 유산 분배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자가 있었습니다. 12절을 보면 "무

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라고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나 13~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정한 판결을 해주시기는커녕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유산 중에 내 몫을 찾겠다는 것이 무슨 탐심이라고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당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따듯하게 말씀해주시기는커녕 너무나 차갑게 내치십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4~37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였다면 따듯한 말을 건넸을 것입니다. 돈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문제를 다 해결해주실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결코 삶에 대한 환난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마음에 세상을 담은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북돋아 줄 뿐입니다.

로마의 네로나 조선의 대원군의 기독교 박해는 오히려 하나님이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을 온전히 떼어내고 하늘에 집중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결코 이 세상에 대해 환난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더러움이 기본인 상태에서 세상 것을 끌어안으려는 원죄의 속성을 따스하게 위로하고 격려해줄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일은 선민들의 삶에 환난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민들이 더욱 세상에 열중할 수 있도록 마음의 더러움을 발견할 성전을 없앤 것입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게 하는 자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하기 위하여 온갖 따스함을 가장하여 찾아올 것입니다.

가지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는 "문제로 인해 얼마나 괴로운지 잘 압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줄 것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끄는 참 지혜자는 "당신이 마음에 문제를 담음으로써 마음이 더러워졌고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차갑게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 물질적 환난은 오히려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자처해야 할 일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 자처해야만 하는 환난을 멈추기 위하여 성전을 모욕하고 상번제를 중단시켰습니다. 더러움이 기본인 상태로 돌아가서 더러움과 친숙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따스한 말들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 더러

워진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환난을 자처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저절로 살아지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편안함을 누리고자 환난을 피해서 더러움과 친숙해지기를 고집한다면 속으로는 무겁고 힘든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환난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또한 부활과 승천에도 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더러움을 유지하고자 하는 원죄의 성향을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이는 환난을 자처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마음에서 등져야만 했듯이, 우리 또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이 세상을 등지는 환란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것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나? 그렇게 사는 것은 광신도나 하는 짓이다. 아브라함의 삶은 이론일 뿐이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말들에 넘어가 사는 동안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무조건적으로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만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이 세상을 등지고 상실하는 대환난을 자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대해 마음이 깡그리 사라져버리는 개국 이래 일어난 적이 없었던 환난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자처하고 반복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환난을 중단시키기 위해 따스함을 가장해서 다가옵니다. 이 상황을 잘 분간하셔서 자처하는 환난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환난을 자처하여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을 등지고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음으로써 날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뚜렷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